

“무등산 난개발 막자” 공유화 첫 단추 끼운다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매입 위한 민·관·정 협의회 28일 출범 일부 단체 “막대한 헐세 투입...엄격한 도시개발 계획이 먼저”

광주시가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2만5821㎡)를 매입해 공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등산 일대 난개발에 대한 지역 환경단체의 대책 요구에 따른 결과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현행 관련법상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법적으로는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만큼 시가 공유화를 추진해 무등산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단체들은 현 도시개발 계획 관련 규정 등으로도 충분히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오는 28일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 (가칭·이하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신양파크호텔부지를 광주시가 매입해 공유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28일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공유화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매입 기준(범위, 가격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유화 이후 효율적이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 14일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 인사들이 공유화 방안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한 차례 모였고, ACC 연계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등 시 추진 사업 적용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협업 조정회의가 개최돼 매입기준을 명확히 해 공유화를 검토하고,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논의했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주)대양인투스는 지난 2019년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접수했지

만, 환경단체 등이 무등산 난개발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현재까지 최종 사업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동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서너 차례 오가며 건설계획사업서의 보완요구가 진행되는 등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가 매입을 통해 공공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단체가 참

여한 ‘무등산신양개혁신축반대시민연대’ (이하 시민연대)는 공유화를 논의하기 이전 광주시의 도시개발계획을 엄격히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모든 보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부지는 ‘자연녹지’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만㎡ 미만의 범위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개발행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시민연대는 현재 (주)대양인투스가 해당 부지 2만5821㎡에 지상 4층의 고급연립주택을 짓것

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으로도 충분히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자연녹지 내 개발규모가 1만㎡이하면 4층짜리 건물 등 주변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서 “광주시의 공유화 계획이 무등산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공유화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협의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단체가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고급 연립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무등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부지 공유화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주요대 등록금 동결 조선대·광주대·호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조선대와 광주대, 호남대 등은 25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대학은 경기 침체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지난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후 2012년 2.1% 인하, 2013년 동결, 2014년 0.63% 인하한 것을 포함해 올해까지 동결을 확정, 13년째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1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광주대는 신입생의 경우 수능 성적에 따라 학업 장려금을 최대 40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호남대는 계열별 등록금을 동결하고, 신입생 입학금을 4년 연속 20%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동신대와 순천대도 지난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학교발전기금 강제’ 종교학교 감사 촉구

학벌 없는 사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이 입학 등록 때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광주 모 종교 관련 학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학년도 이 학교 초등과정 입학 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게만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각종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고, 설립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돼 있다”며 “또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는 경우 기금조성 중단과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상피제 무력화’ 시킨 교장

광주 광일고 감사, 교사 자녀인 줄 알면서도 전학 허락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인 교사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전학을 허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어긴 광주 광일고에 대한 감사 결과, 이 학교 A교사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여고 1학년에 다니던 딸의 전학 문제를 B교장과 상의했다.

A교사는 딸이 교우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B교장에게 하소연했고, B교장은 A교사 딸이 광일고로 전학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같이 B교장이 상피제를 어기면서까지 전학을 허락한 것은 공교육과 내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지 학교(비평준화학교)인 광일고는 시 교육청 일괄 배정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지원 의사에 따라 정원(1학년 54명·2학년 96명·3학년 64명)을 채운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해당 학교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은 불가능하다. A교사 딸은 전학 후 이 학교에서 1점 중반대의 내신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등 상피제를 어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조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9월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광일고 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명동 문화마을’ 도심 관광지 성장가능성 높다

관광공사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광주시 동구 동명동이 광주에서 유일하게 유명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됐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지역관광 균형 발전을 위해 향후 유망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해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동명동 문화마을’은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245, 총장로·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과 인접해 있어 유·무형 인문자산을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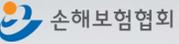
동명동은 작은 골목길들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

직한 채 이색적인 카페와 맛집 등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점이 도심 속 관광지로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동구는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강소형 잠재관광지’ 구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여행코스 개발 ▲관광 상품화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통해 동명동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인택 동구청장은 “동명동은 예스런 골목 속에 맛과 멋,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동네”라면서 “이번 공모선정을 계기로 관광객이 복적이고 골목경제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